

YONHAP NEWS AGENCY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글로벌 10대 뉴스통신사로  
도약합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

## Contents

### 특종기사 모음

- 01 전세계를 뒤흔든 美대사 피습...‘속보의 강자’ 입증
- 02 北 4차 핵실험 도발...내·외신은 연합뉴스만 바라봤다
- 03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현장을 파고든 취재의 개가
- 04 검찰 수사 이끌어 낸 취재...사학 비리에 경종
- 05 끈질긴 취재로 밝혀진 드라마 같은 방산 비리
- 06 재벌 치부 드러낸 롯데 ‘형제의 난’...집요한 취재의 결실
- 07 한밤 중 울린 전화벨...YS 서거 특종

### 회사 소개

- 08 글로벌 10대 뉴스통신사로 도약하겠습니다
- 12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 연합뉴스 사람들

- 24 편집국
- 28 영문·다국어뉴스부
- 29 기획조정실 글로벌전략팀
- 30 미디어기술국
- 31 미디어랩

### 연합뉴스 계열사

- 32 연합뉴스TV
- 34 연합뉴스포맥스
- 35 동북아센터

### 연합뉴스 이모저모

- 36 국가홍보·미디어외교
- 38 해외취재망 확대·해외동포 교류협력
- 40 다문화 관련 활동·연합뉴스 알리기
- 42 모바일SNS 역량 강화·사내 동정
- 45 연합뉴스 간행물

알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2016. 4.

## 특종기사 모음

# “대한민국의 뉴스, 연합뉴스에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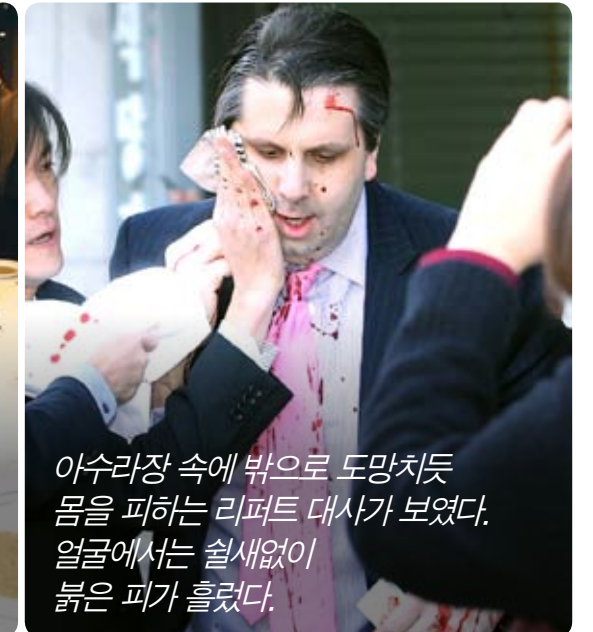
## 전세계를 뒤흔든 美대사 피습...‘속보의 강자’ 입증

통일외교부 김효정 기자, 연합뉴스TV 진교훈 기자/ 2015.3.5

삼성  
언론상  
방송부문



“아악!”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앉은  
헤드테이블 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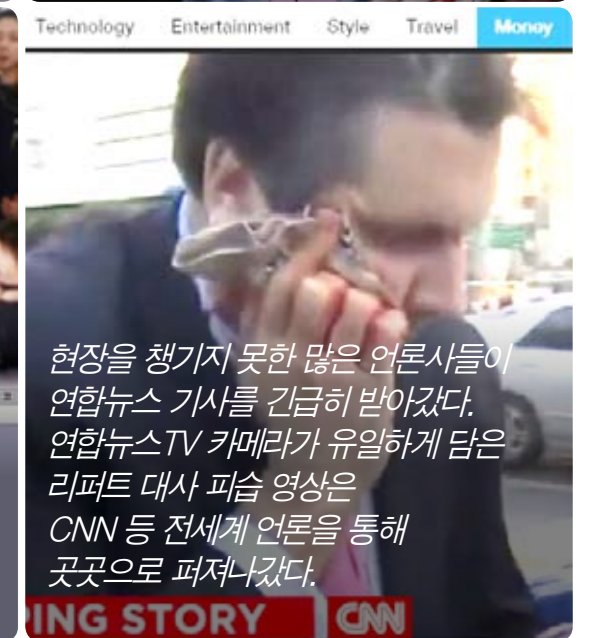
이수라장 속에 밖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하는 리퍼트 대사가 보였다.  
얼굴에서는 설새없이  
붉은 피가 흘렀다.



김효정 기자

노트북을 펼 시간도 없었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실한 상황만 압축해 ‘1보’를 불렀다.  
리퍼트 대사, 괴한 공격받아 부상

①②  
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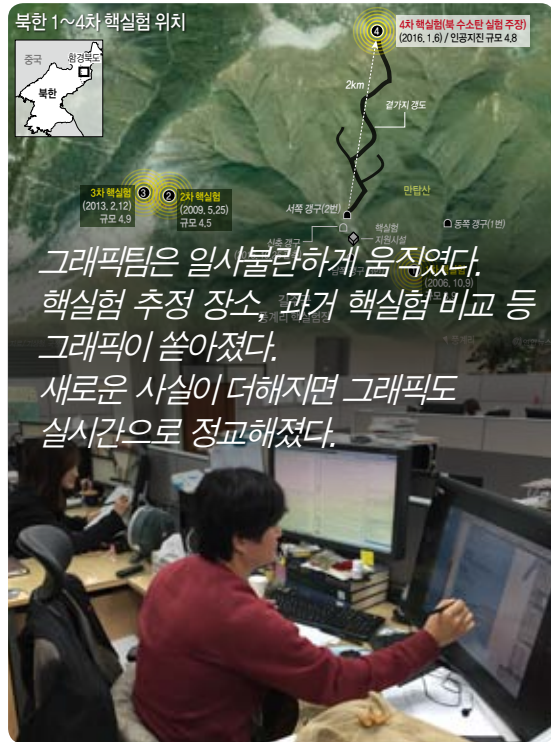


현장을 챙기지 못한 많은 언론사들이  
연합뉴스 기사를 긴급히 받아갔다.  
연합뉴스TV 카메라가 유일하게 담은  
리퍼트 대사 피습 영상은  
CNN 등 전세계 언론을 통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ING STORY | CNN

# 北 4차 핵실험 도발...내·외신은 연합뉴스만 바라봤다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그래픽팀/ 2016.1.6



12 34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

#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현장을 파고든 취재의 개가

인천취재본부 강중구·손현규·윤태현 기자/ 201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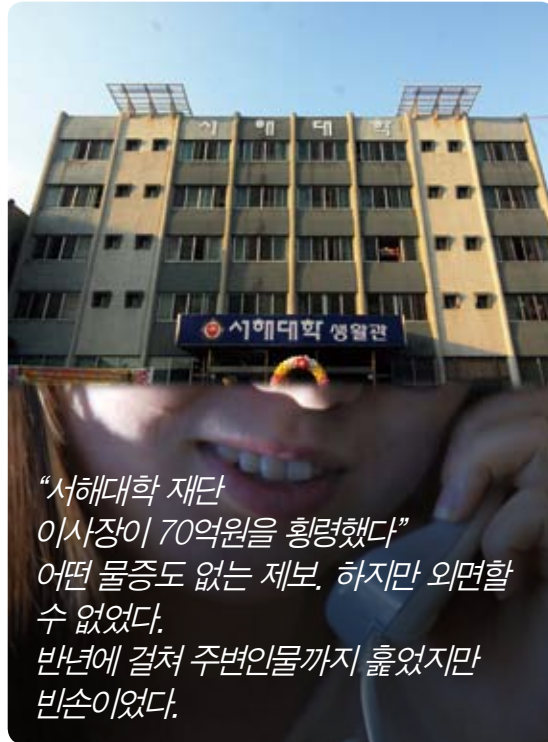


12 3

# 검찰 수사 이끌어 낸 취재...사학 비리에 경종



전북취재본부 김진방 기자/ 2015.8.20



“서해대학 재단 이사장이 70억원을 횡령했다” 어떤 물증도 없는 제보.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 반년에 걸쳐 주변인물까지 훑었지만 빈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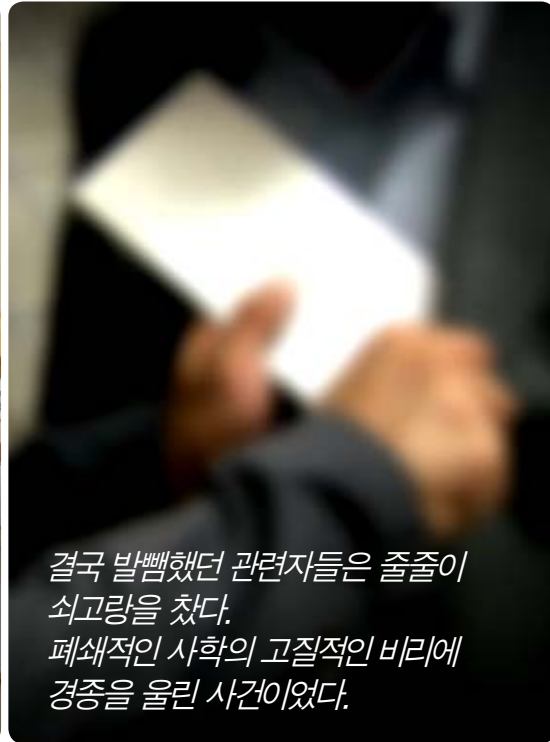


김진방 기자

취재는 내부자의 관련 서류 제보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반년간 짜놓았던 사건 열개가 비로소 기사로 완성됐다.



기사가 송고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횡령에 더해 공무원,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사실도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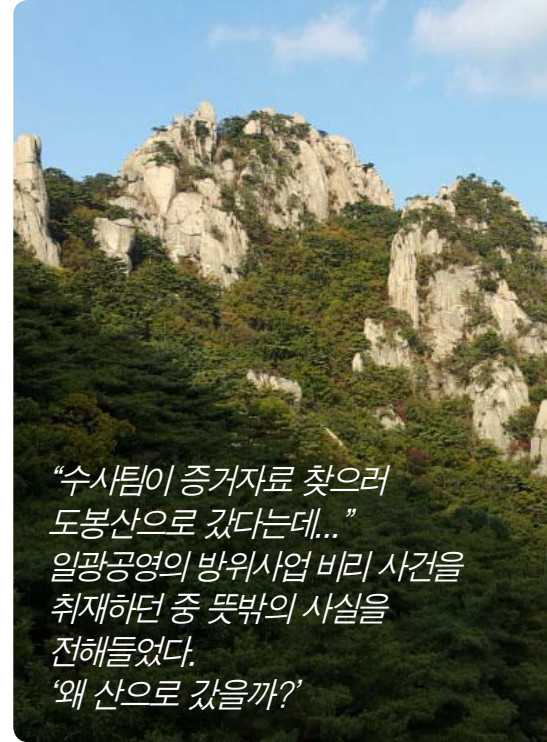


결국 발뺌했던 관련자들은 줄줄이 쇠고랑을 찻다. 폐쇄적인 사학의 고질적인 비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12 34

# 끈질긴 취재로 밝혀진 드라마 같은 방산비리

사회부 이광철·서혜림 기자/ 2015.3.29



“수사팀이 증거자료 찾으러 도봉산으로 갔다는데...” 일광공영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취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전해들었다. ‘왜 산으로 갔을까?’



전방위 취재가 시작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회장의 최측근 금고지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혜림 기자

최측근이 인멸을 시도했던 자료는 핵심증거일 가능성이 높았다. 물음표는 점점 짙어졌고 취재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12 34



마침내 도봉산에서 발견된 컨테이너에서 1t이 넘는 방산비리 증거자료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십년간 군과 무기중개업체가 유착된 방산비리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 재벌 치부 드러낸 롯데 ‘형제의 난’...집요한 취재의 결실

소비자경제부 전준상·신호경·고유선·이유미 기자, 조준형 일본특파원/ 2015.7.28



“신동빈이 형을 제압하고 아버지를 퇴진시켰다” 충격적인 제보였다. 일본 특파원과 공조해 기사를 송고했다. 즉별 대기업의 치부를 드러낸 롯데 ‘형제의 난’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제보를 이끌어낸 힘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든 경영권 분쟁 취재였다.



이미 경영권은 신동빈에게 기운 상태였지만 연합뉴스는 확실한 ‘마침표’를 기다리며 어렵게 취재원을 확보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조준형 특파원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형제의 난’은 불쌍사나운 가족간 파벌 싸움으로 비화했다. 한국 대기업의 후진적인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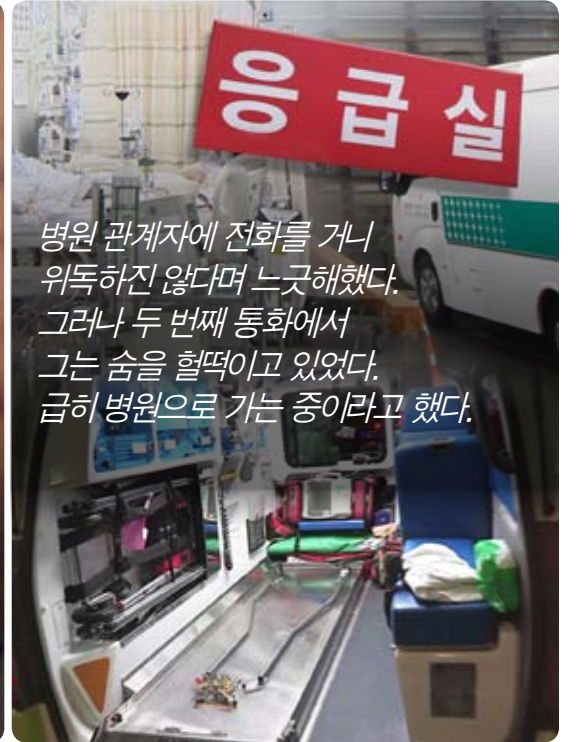
①②  
③④

### 한밤중 울린 전화벨... YS 서거 특종

사회부 김은경 기자, 사연팀/ 2015.11.22



휴가 첫날, 이부자리를 막 뚫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YS가 위독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에 전화를 거니 위독하진 않다며 느긋해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에서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병원으로 달렸다. 동료들은 현장과 사무실에서 모든 촉수를 세우고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김은경 기자

①②  
③④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연합뉴스는 첫 뉴스를 타진했다. 휴가 중 날아든 전화 한 통은 온 국민을 깨운 특종이 됐다.

회사소개

# “글로벌 10대 뉴스통신사로 도약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연합뉴스TV 본사 사옥.

연합뉴스는 국내 언론계 최대 취재망을 가동해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인 연합뉴스는 빠르고 정확한 보도로 뉴스·정보의 독점과 왜곡을 막는 데도 힘을 모읍니다.

연합뉴스에는 국내 언론계 최대 규모인 570여 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촘촘히 구축돼 있는 취재망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연합뉴스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언론의 모든 취재 분야를 망라합니다. 뉴스콘텐츠의 생산규모도 글, 사진, 그래픽, 영상 등을 아울러 하루 3천여 건을 웃돕니다.

이 콘텐츠는 국내 언론사 180여 곳, 포털 등 뉴미디어 120여 곳,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10여 곳, 민간기업 250여 곳에 공급됩니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만큼 콘텐츠의 다양성과 확산성을 겸비한 연합뉴스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온국민에 빠짐없이 뉴스를 전달해 정보격차 해소와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소통하는 '뉴스의 창'으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연합뉴스는 70개국 83개에 이르는 외국의 주요 뉴스통신사와 협정을 맺어 국제적인 기사 교류에도 힘씁니다.

연합뉴스는 국내외 취재망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

유수 뉴스통신사들과 겨룰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글로벌 10대 뉴스통신사로 도약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1980년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을 양축으로 시사, 경제, 산업 등 3개 특수뉴스통신을 통합해 '연합통신'으로 출범했습니다. '연합뉴스'라는 사명은 1998년 12월부터 사용했습니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뉴스통신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적기능을 수행합니다.

### 뉴스통신법 따라 공적 기능 수행

소유구조도 연합뉴스의 공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전체 지분의 30.77%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나머지 지분은 KBS, MBC 등 방송사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분산돼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분을 가진 사영 뉴스통신사나 유사 뉴스통신사들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200여명에 육박하는 해외 및 지역 취재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개 주요 언어로 해외에 보내는 외국어 뉴스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내 유일의 북한 매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재외동포·다문화 뉴스 전담 부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지분 현황(총 40개사)

뉴스통신진흥회 30.77%	KBS 27.77%
MBC(지방 MBC 19개사 포함) 24.73%	조선일보 등 9개 일간지 11.81%
	9개 지방지 4.92%

### 연합뉴스를 통해 세상을 바로 봅니다

연합뉴스는 실 세 없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속에서 한국 언론의 중심을 잡고자 애씁니다. 웹과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신문·방송 위주였던 미디어 시장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매체 수는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 2015년 12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합일간지는 374개, 각 시·도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는 무려 5천 950개에 달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출현이 정보 격차 해소와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가속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확인 조차 제대로 안된 유언비어 수준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뉴스 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합뉴스가 공들여 생산한 원천 기사들이 유사 언론에 의해 순식간에 무단으로 복제·전송된다든가, 단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같은 기사를 수없이 반복하는 어뷰징(abusing) 등이 온라인 뉴스시장을 뒤덮은지 오래입니다.

연합뉴스는 이처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탁한 뉴스시장에서 신속·정확하고 불편부당한 뉴스로 한국 언론의 방향타 역할을 깨끗하게 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역할은 언론이 지나친 상업주의에 휘둘리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연합뉴스는 공정하면서도 발빠른 의제 설정을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미사여구와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되고 호도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국가와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이처럼 뚜렷한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공적 언론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 “연합뉴스의 매체 영향력은?”

인터넷뉴스 점유율 1위...2~3위 합산 점유율보다 높아  
국내 매체 종합 영향력은 KBS, 조선일보 이어 3위

연합뉴스는 한국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2016년 1월에 국내 언론사 중 연합뉴스의 영향력을 3위로 규정했습니다.

신문과 TV, 라디오, 인터넷뉴스 등 부분에서 각 매체 계열 언론사의 영향력을 합산했을 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주축이된 연합뉴스 계열의 영향력을 9.9%로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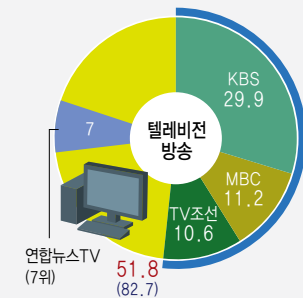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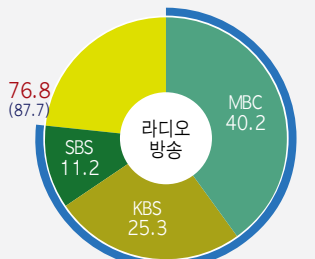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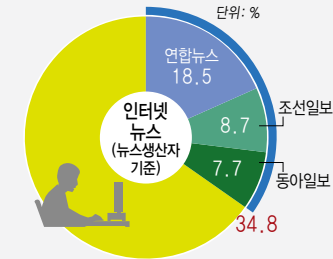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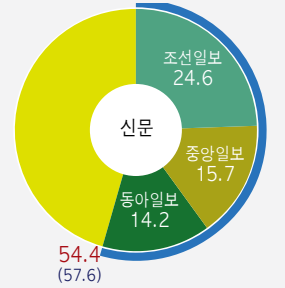
이는 KBS 계열(17.5%), 조선일보 계열(11.1%)에 뒤 이은 수준으로 동아일보 계열(9.7%), MBC 계열(7.6%), SBS 계열(7.1%), 중앙일보 계열(6.4%)을 앞서는 수치입니다.

연합뉴스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인터넷 뉴스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뉴스 점유율이 18.6%로 2위인 조선일보(8.8%), 3위인 동아일보(7.8%)를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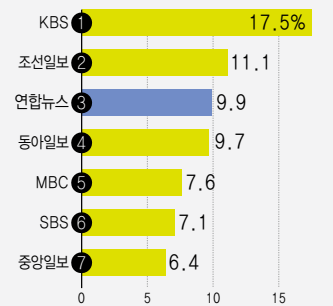
연합뉴스의 자회사인 보도채널 연합뉴스TV의 텔레비전 분야 점유율은 7.0%로 출범 4년만에 이 분야 강자인 YTN(7.8%)을 바짝 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과 라디오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인터넷 뉴스와 TV방송의 힘은 확연히 커졌음이 확인됐습니다. 젊은 층이 인터넷 뉴스를 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연합뉴스 매체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대 매체 여론영향력 조사 결과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법에 따라 대한민국 뉴스통신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합니다.

연합뉴스는 이를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국내외 언론매체·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뉴스를 중단 없이 공급합니다.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언론매체·기업·단체 등에 대한 외국어뉴스 서비스, 국제친선·문화교류·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도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 국내 언론사 최대 규모의 해외취재망

연합뉴스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한반도 관련 현안을 우리 시각으로 취재해 보도하는 등 정보주권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사로는 최대 규모인 60명의 해외취재인력을 25개국 33개 지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70개국 83개 해외뉴스통신사와 교류협정을 맺고 지구촌 구석구석의 뉴스를 국내 독자들에게 시시각각 전합니다.

연합뉴스는 외국 유수의 뉴스통신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외취재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로마, 쿠바 아바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취재망을 증설했으며 아프리카에 순회특파원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특파원을 증원하는 등 지역 거점화 작업을 하나가고 있습니다.

거점화 전략을 통해 해외 소외지역에서 주요 뉴스 발생시 인근 상주 특파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현장 취재 대응력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유럽 및 아시아 지역 담당 및 국제경제뉴스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해외뉴스의 지역·분야별 전문성도 강화했습니다.

해외특파원들이 생산한 콘텐츠는 938곳에 이르는 연합뉴스 고객사를 통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배포됩니다.

이는 국내 언론사, 포털 등 미디어에 제공되어 재생산·재배포 과정을 통해 전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외국 뉴스통신사 및 해외 언론사의 인용보도 등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 해외 뉴스통신사와 교류 확대

연합뉴스는 국내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70개국 83개 뉴스통신사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북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등 상대적으로 교류 뉴스통신사 수가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신규 뉴스교류 협정 체결을 늘려 전세계에 걸쳐 교류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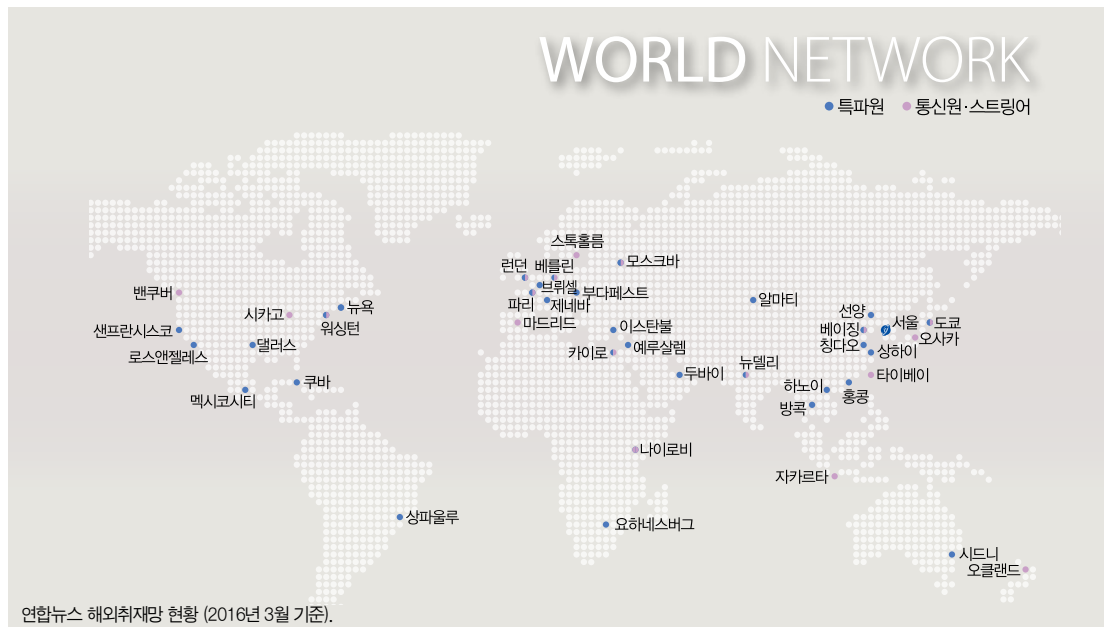
촘촘히 엮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는 뉴스교류협정 외에도 국익 차원에서 에티오피아 ENA, 루마니아 아제르프레스, 이탈리아 안사, 세르비아 탄유고, 아르메니아 아르멘프레스, 마케도니아 MIA, 알바니아 ATA, 몽골 문자메, 베트남 VNA,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아제르바이잔 아제르텍, 러시아 로시아시보드냐, 우크라이나 우크린폼 등 13개 뉴스통신사와 국가홍보뉴스 교류협정을 맺고 대한민국을 홍보합니다.

국가홍보뉴스 교류협정을 체결한 상대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한국 홍보 뉴스 콘텐츠를 자국 언어와 영어로 자국 전역에 전파하며, 연합뉴스는 상대국의 콘텐츠를 받아 국내에 배포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데 앞장섭니다.

연합뉴스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20개국 22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하나가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해외뉴스통신사 외신 계약 현황: 70개국 83개사

### 유료계약 10개사

1 AP	미국
2 AFP	프랑스
3 dpa	독일
4 epa	독일
5 TASS	러시아
6 Reuters	영국
7 UPI	미국
8 Xinhua	중국
9 PA	영국
10 KCNA	북한

### 기사교류협정 64개사

1 AAP	호주	22 Kyodo	일본	43 Ukrinform	우크라이나
2 ANA-MPA	그리스	23 LUSA	포르투갈	44 UNB	방글라데시
3 AKP	캄보디아	24 MAP	모로코	45 UNI	인도
4 Anadolu	터키	25 MENA	이집트	46 UZA	우즈베키스탄
5 ANP	네덜란드	26 MONTSAME	몽골	47 VNA	베트남
6 ANSA	이탈리아	27 MTI	헝가리	48 WAM	아랍에미리트
7 ANTARA	인도네시아	28 Notimex	멕시코	49 KAZINFORM	카자흐스탄
8 APP	파키스탄	29 ONA	오만	50 RSS	네पाल
9 APS	알제리	30 PAP	폴란드	51 KPL	라오스
10 BERNAMA	말레이시아	31 PNA	필리핀	52 Mehr News Agency	이란
11 BELTA	벨로루시	32 AzerTac	아제르바이잔	53 NTB	노르웨이
12 Bloomberg	미국	33 Trend	아제르바이잔	54 APA	오스트리아
13 BNA	바레인	34 PPI	파키스탄	55 HINA	크로아티아
14 BTA	불가리아	35 PTI	인도	56 PETRA	요르단
15 CNA	대만	36 QNA	카타르	57 CTK	체코
16 CNA	키프로스	37 ENA	에티오피아	58 TASR	슬로바키아
17 EFE	스페인	38 Agerpres	루마니아	59 KUNA	쿠웨이트
18 GNA	가나	39 SPA	사우디아라비아	60 Rossiya segodnya	러시아
19 IRNA	이란	40 TANJUG	세르비아	61 NAN	나이지리아
20 LANA	리비아	41 TAP	튀니지	62 ARMENPRES	아르메니아
21 Khabar	카자흐스탄	42 TELAM	아르헨티나	63 MIA	마케도니아
				64 ATA	알바니아

### OANA 간섭교류 9개사

1 ANI	인도
2 Bakhtar	아프가니스탄
3 BSS	방글라데시
4 JJI	일본
5 KABAP	키르기스스탄
6 LANKAPUVATH	스리랑카
7 SANA	시리아
8 TNA	태국
9 SABA	예멘





01



04



02

03

- 01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이사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대표들이 2015년 11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동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02 OANA 이사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박노환 연합뉴스 사장.
- 03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진행 중인 OANA 이사회 회의.
- 04 OANA 이사회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대표들.

##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이사회 주최하며 '미디어 외교'

연합뉴스는 2015년 11월 16~17일 서울에서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미디어 외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뉴스통신사들의 협의체인 OANA는 35개국 43개사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연합뉴스는 OANA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주체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OANA 이사회 참여 주요 뉴스통신사들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각

국의 뉴스통신사를 통해 전세계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연합뉴스가 발의한 'OANA 서울 2015 선언(OANA Seoul 2015 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테러 직후 채택된 이 선언은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OANA 회원사들의 지속적 보도 실행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2010년에도 아태뉴스통신사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아태지역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4개 지역연맹 대표 등 32개국 41개사 80명의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우리 시각의 뉴스를 6개 외국어로 세계에 전파

연합뉴스는 한반도 뉴스를 우리의 시각으로 제작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개 외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어뉴스 서비스는 세계에 한국을 정확히 알리고 외국 언론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해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현재 원어민 기자를 포함해 63명(2015년말 기준)의 인력을 외국어뉴스 제작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외국어뉴스 서비스는 국익 차원의 공적 기능이어서 상업적 언론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중장기적으로 외국어뉴스 전문 인력을 일본 교도통신(94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외국어뉴스는 연합뉴스 고객사를 비롯해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구독합니다. 특히 미 국무부, 싱가포르 국방부는 연합뉴스 영문뉴스 구독 계약을 체결해 한반도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BBC, NHK, CNN, 알자지라방송 등 국내 주재 23개 외신과 전채 계약을 맺고 있는 등 연합뉴스 외국어뉴스는 해외 언론사의 인용보도를 통해 전세계에 전파됩니다.

연합뉴스 외국어뉴스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매년 급증해 2015년 월평균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2009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1천490만건을 돌파하

*"연합뉴스의 외국어뉴스 서비스는 세계에 한국을 정확히 알리고 외국 언론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해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는 등 갈수록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세계 70개국 83개 외국 뉴스통신사에 영문 뉴스레터 'Yonhap Weekly News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뉴스 중국어팀은 자회사인 연합뉴스TV의 '오늘의 연어가' 프로그램에 중문 자막 등을 제공하고, 중국 2대 통신사인 중신망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뉴스교류를 통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와 중국 인민일보 뉴스포털 인민망은 2015년 9월 뉴스교류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연합뉴스 중문기사는 인민망 한국채널(중문)에, 인민망 국문기사는 연합뉴스 국문홈페이지 '세계' 뉴스란에 하루 5건씩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뉴스는 중문홈페이지에 인민망 한국채널(중문)을, 인민망은 한국어판(국문)에 연합뉴스 국문홈페이지로 연동된 배너를 게재 중입니다.

코리아넷 등 관련 기관이나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뉴스통신사 13곳과 국가홍보뉴스 교류협정을 맺고 관련 뉴스를 교환해 '국가 홍보' 부문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6 14:50)

영어 "Now, the government should clos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pays the corresponding price for the nuclear test"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said in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at Cheong Wa Dae,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1.6 17:11)

스페인어 "Ahora el Gobierno debe cooperar estrechamente con la comunidad internacional para asegurarse de que Corea del Norte pague el precio correspondiente por su prueba nuclear", dijo Park en una reunión del Consejo de Seguridad Nacional en Cheong Wa Dae, la oficina presidencial surcoreana. (1.6 17:42)

프랑스어 La présidente Park Geun-hye a souligné ce mercredi la nécessité de «faire payer le prix à la Corée du Nord pour son quatrième essai nucléaire en travaillant étroitement avec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1.6 16:35)

중국어 韩国总统朴槿惠6日就朝鲜宣布成功进行首次氢弹试验表示，韩方要与国际社会紧密合作，让朝鲜为进行此次核试验付出相应的代价。 (1.6 16:10)

일본어 朴大統領は水爆実験に関する報告を受け、北朝鮮に対し「厳しい国際的制裁」など断固とした対応が必要だと強調したという。これをめぐり、朴大統領がオバマ米大統領と電話会談し、対応を協議するとの見方も出ている。(1.6 16:07)

아랍어 تفوك حل نا، عابرا لى جوى ال هيه نوك لراب قيبونج لى قيروللا قسرى لى لى امدايق نمث عفتت قىلالمشرا ايدوك لى لى عت نا ايلع بى جى قىبونج لى قيروللا يلودلا عمت جم لى عم قيشولا نواع لى لى نم قيوون قىرجتت (1.6 16:17)



# 경제·문화·한류 콘텐츠 연합뉴스 통해 전세계로

연합뉴스는 한국을 알리는 뉴스를 제휴 중인 전세계 뉴스통신사로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식을 우리 시각으로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우선 70개국 83개사 뉴스통신사 간부들에게 매주 1회 'Yonhap Weekly News letter'를 발송합니다.

그 주의 주요 국내 기사(영문뉴스) 7건과 영문 캡션 사진 3건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묶어 외국 뉴스통신사 보직 간부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뉴스레터에는 한국 정부의 주요 국정 활동과 한류 등 국가 홍보 기사도 담깁니다.

특히 교류하고 있는 외국뉴스통신사 가운데 이탈리아 안사 등 13개사 뉴스통신사와는 국가홍보뉴스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국가홍보뉴스 교류는 연합뉴스가 한국의 경제, 문화, 여행, 예술, 역사 등에 관한 뉴스를 해당 뉴스통신사에 보내주면 상대 쪽에서 영어와 자국어로 이 뉴스를 자국 내 신문이나 방송, 포털 등에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연합뉴스는 2016년 2월 2일 처음으로 국가홍보뉴스를 발송했으며 마케도니아 통신, 루마니아 아제르프레스는 한국 홍보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신고서 해당기사의 URL 링크를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연합뉴스가 매주 발송하는 'Yonhap Weekly Newsletter'(왼쪽)와 마케도니아 통신이 자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 홍보 뉴스(오른쪽).



연합뉴스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빠르고 정확한 북한뉴스로 통일시대를 선도

연합뉴스는 빠르고 정확한 북한뉴스와 정보로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고 통일시대를 선도합니다. 연합뉴스는 차별화한 북한뉴스를 국내외에 공급하고자 북한뉴스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북한부와 정치부 통일외교팀을 통합해 2015년 말에 통일외교부를 신설했습니다. 북한소식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교, 국방, 통일분야의 정보를 북한뉴스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영역간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함입니다.

연합뉴스 북한팀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신보, 민주조선, 조선중앙TV 등 10여개 이상의 북한 매체를 모니터링해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팀은 북한의 뉴스통신·TV·라디오 매체를 24시간 모니터링해 북한매체의 보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합뉴스는 2002년 12월 국내언론사로서 최초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아가 연합뉴스는 북한·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뉴스를 알기 쉽고 깊이

있게 검색할 수 있는 북한 전문 검색사이트 '북한포털'을 2016년 4월1일 가동했습니다.

'북한포털'은 연구자들을 위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연합뉴스가 1998년 인수·합병한 내외통신 때부터 축적해온 방대한 양의 북한 정보를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합뉴스는 2015년 8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국내외 저명한 북한학자들을 초빙해 국제학술회의 '한반도통일심포지엄'을 처음 개최했으며,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이 행사를 연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구축한 긴급뉴스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연합뉴스는 2015년 1월 북한이 예고 없이 HD방송으로 전환하자 관련 모니터링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기사 생산을 지속하는 등 북한·통일 분야 뉴스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 01 연합뉴스 사옥에서 열린 '제1기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명예기자들.
- 02 2015년 6월 대구 달성군 낙동강 중류 도동 나루터 인근에서 드론 장비에 포착된 녹조 현상.
- 03 경기북부취재본부 김도윤 기자가 2007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산림청 시험림에서 논두렁에 바퀴가 빠진 차량을 두고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01

02

03

### 재외동포·다문화 관련 뉴스로 한민족·사회 통합에 기여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을 다하고자 700만 재외동포 관련 뉴스정보를 집결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민족 통합에 앞장섭니다.

또 다문화 뉴스 보급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에도 발 벗고 나섭니다.

연합뉴스는 한민족센터 산하에 국내 유일의 재외동포·다문화 뉴스 전담 부서인 한민족뉴스부를 통해 관련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합뉴스 전체 고객사에 이를 제공합니다.

한민족센터는 또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고국을 연결하는 소통채널인 한민족포털 사이트(www.koreancenter.co.kr)를 운영하면서 세계한인언론연합회 및 130여개 재외동포 언론사에 재외동포·다문화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제공 외에도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등

다양한 재외동포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국제행사 등을 열고 있으며, 각종 다문화 행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2016년 2월 1일 제1기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 16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세계 70개국 137개 지회에 6천600여 명의 정회원과 1만6천5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거느린 월드옥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합뉴스 콘텐츠 역량 강화에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연합뉴스-월드옥타 명예기자는 기사 제보, 사진 및 영상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수 활동자는 통신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 연합뉴스는 취약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힘씁니다

연합뉴스는 140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취재망을 가동해 중앙과 지방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 맞춤형 기사의 공급을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지역 취재기자들의 재난재해·사건사고·멀티미디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전국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슈를 온국민에 빠짐없이 전하고자 힘씁니다.

특히 섬, 산악지역, 접경지역 등 국내 타 언론사의 취재 취약지역에 주재기자와 통신원을 두어 뉴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서해 연평도를 비롯해 제주도의 우도·추자도·비양도, 울릉도, 흑산도,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등에 본부별 통신원을 추가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들 지역 외에도 긴급상황 발생 시 접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산간벽지나 섬지역 등에 통신원을 위촉해 정보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언론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정보가 전국의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상호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재난재난·사건사고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 '재난재해보도 기본 준칙' 및 '재난재해취재보도 실무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또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주요 국가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재난재난 보도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뉴스 시대에도 앞서 갑니다

연합뉴스는 하루 평균 3천건이 넘는 방대한 뉴스 콘텐츠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연합뉴스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급 대응력과 유통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모바일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위한 디지털뉴스부를 가동해 카드뉴스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영상·이미지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도 보강해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생산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영상, 이미지, 글 기사 등을 조합해 모바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를 개발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지털 CMS는 향후 플랫폼 사업의 형태로 영세 지역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합뉴스 콘텐츠의 공익적 활용을 돕고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뉴스리더를 무료 보급하고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를 설치하는 것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역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한 연합뉴스 오픈 API 사업 제휴 사고 이들은 연합뉴스가 공개한 뉴스 검색·교류 시스템을 활용해 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다.

### 오픈 API로 군소 미디어와 상생

연합뉴스는 지역신문과 재외동포신문 등 군소 미디어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자립을 지원합니다.

연합뉴스는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의 세미나를 정례 후원하는 등 학술지원을 통해 뉴스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픈 API를 통한 군소 미디어 업체의 ICT 능력을 높이는 등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오픈 API 사업에는 현재 52개사가 참여해 뉴스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된 뉴스콘텐츠는 약 1천400만 건에 달합니다. 참여사는 2016년 60개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지방신문 협력방안'을 통해 뉴스콘텐츠 DB 개방, 사진 판매대행, 연합뉴스 홈페이지 및 연합뉴스TV에 지역신문 기사 소개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도 벌입니다.

국내 미디어 업계 처음으로 설립한 연합뉴스 미디어랩은 융합 콘텐츠 연구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미디어 업계에 연구 성과를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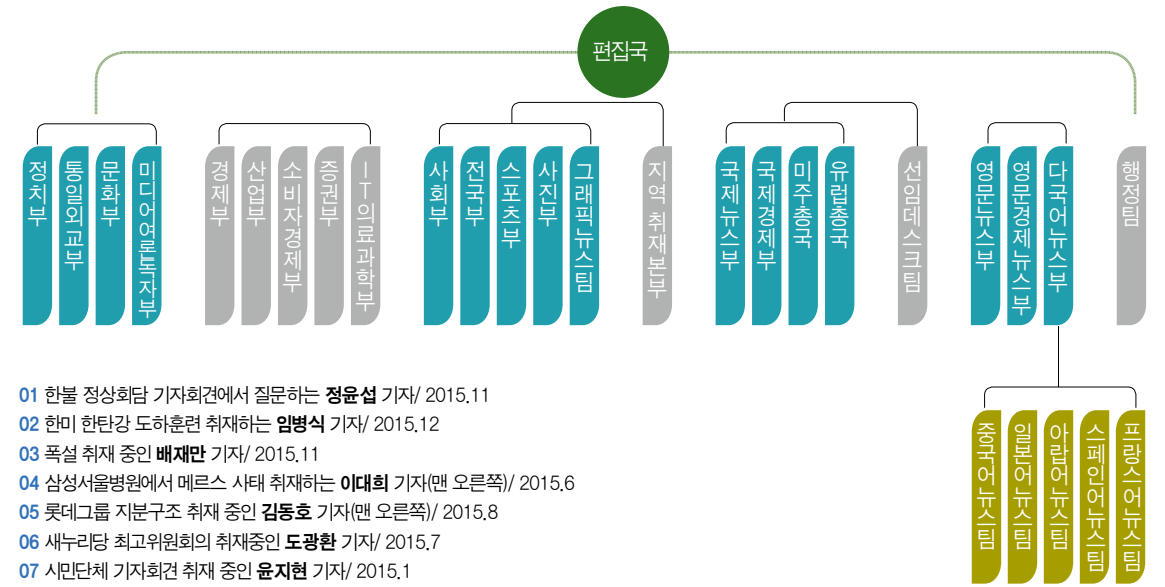
연합뉴스의 이같은 다양한 공적 서비스에 물적·인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 편집국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는 연합뉴스의 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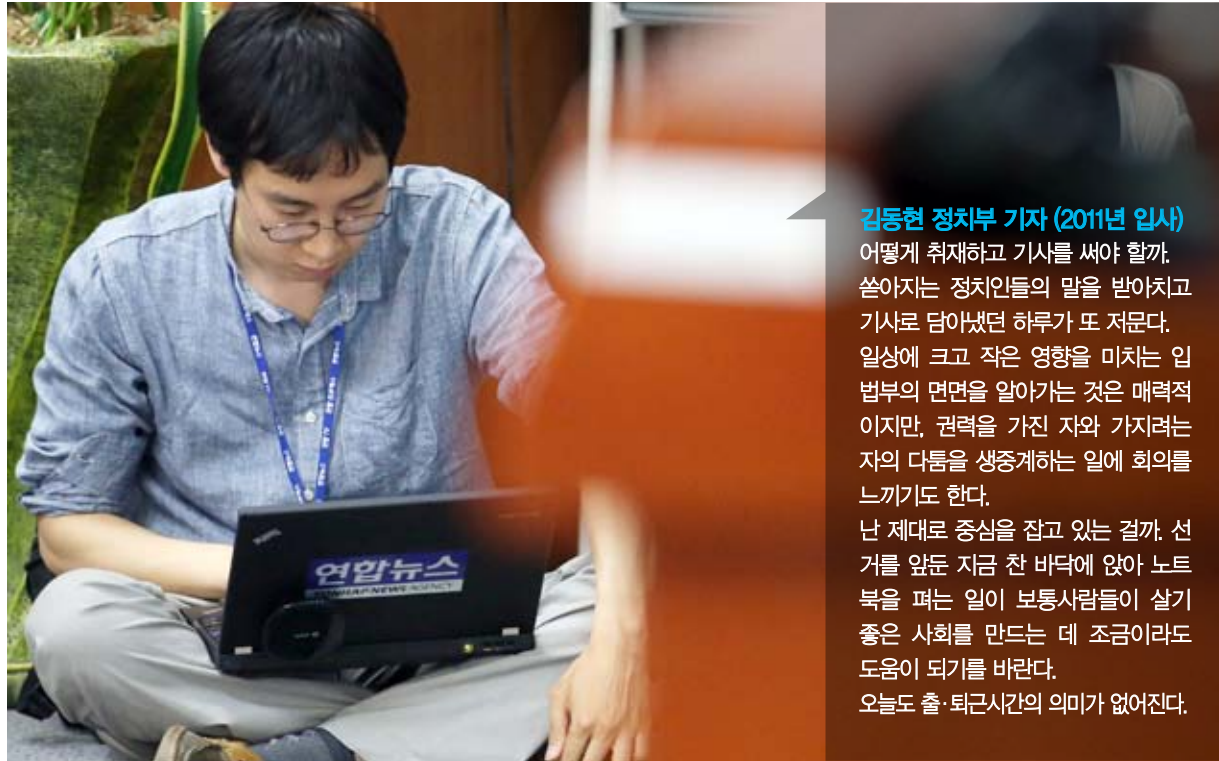
국내 언론계 최대 규모인 570여명의 기자가 시시각각 현장을 누비며 하루 약 3천여건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에서 생산된 글 기사, 사진, 그래픽,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는 언론사 180여곳, 포털 등 뉴미디어 120여곳,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210여곳, 민간기업 250여곳에 공급됩니다.



- 01 한불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는 **정윤섭** 기자/ 2015.11
- 02 한미 한탄강 도하훈련 취재하는 **임병식** 기자/ 2015.12
- 03 폭설 취재 중인 **배재만** 기자/ 2015.11
- 04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사태 취재하는 **이대희** 기자(맨 오른쪽)/ 2015.6
- 05 롯데그룹 지분구조 취재 중인 **김동호** 기자(맨 오른쪽)/ 2015.8
- 06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취재중인 **도광환** 기자/ 2015.7
- 07 시민단체 기자회견 취재 중인 **윤지현** 기자/ 2015.1
- 08 소방차 훈련 취재 중인 **설승은** 기자/ 2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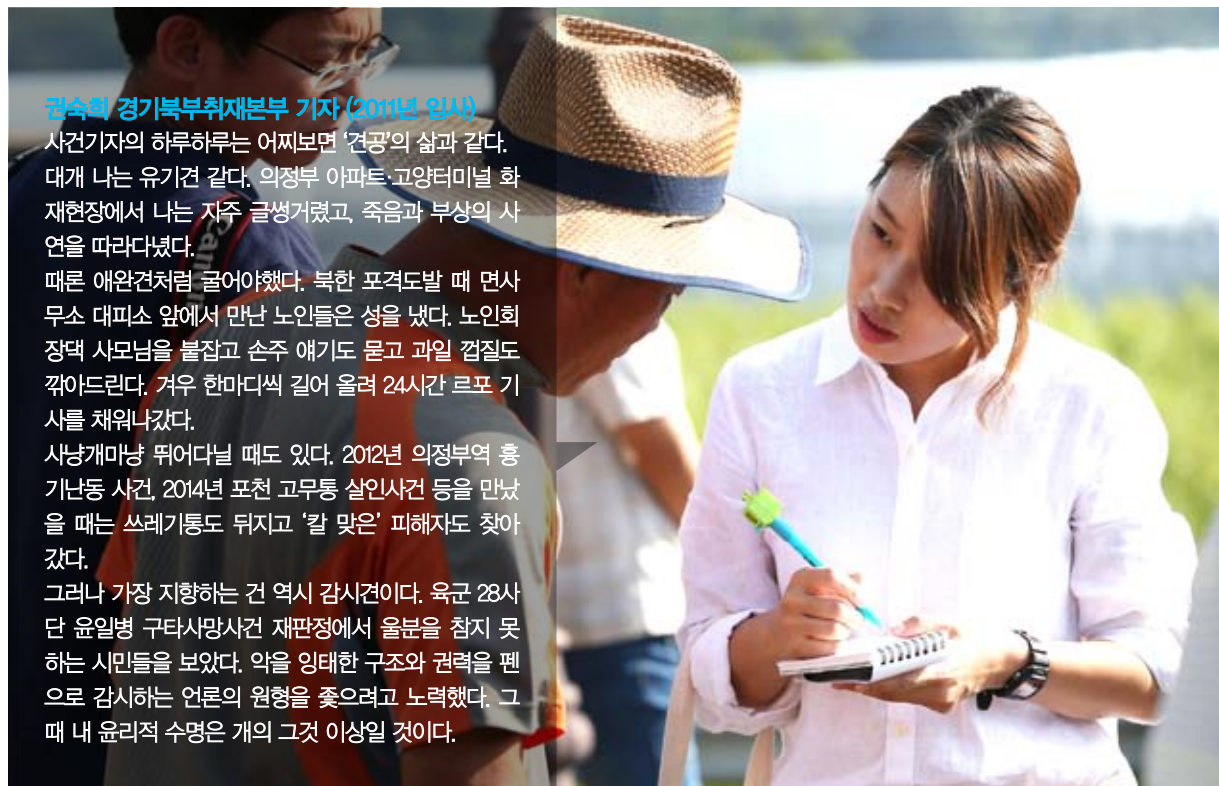


**김동현 정치부 기자 (2011년 입사)**

어떻게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할까.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을 받아치고 기사로 담아냈던 하루가 또 저문다.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입법부의 면면을 알아가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려는 자의 다툼을 생중계하는 일에 희의를 느끼기도 한다.

난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 걸까. 선거를 앞둔 지금 찬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일이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출·퇴근시간의 의미가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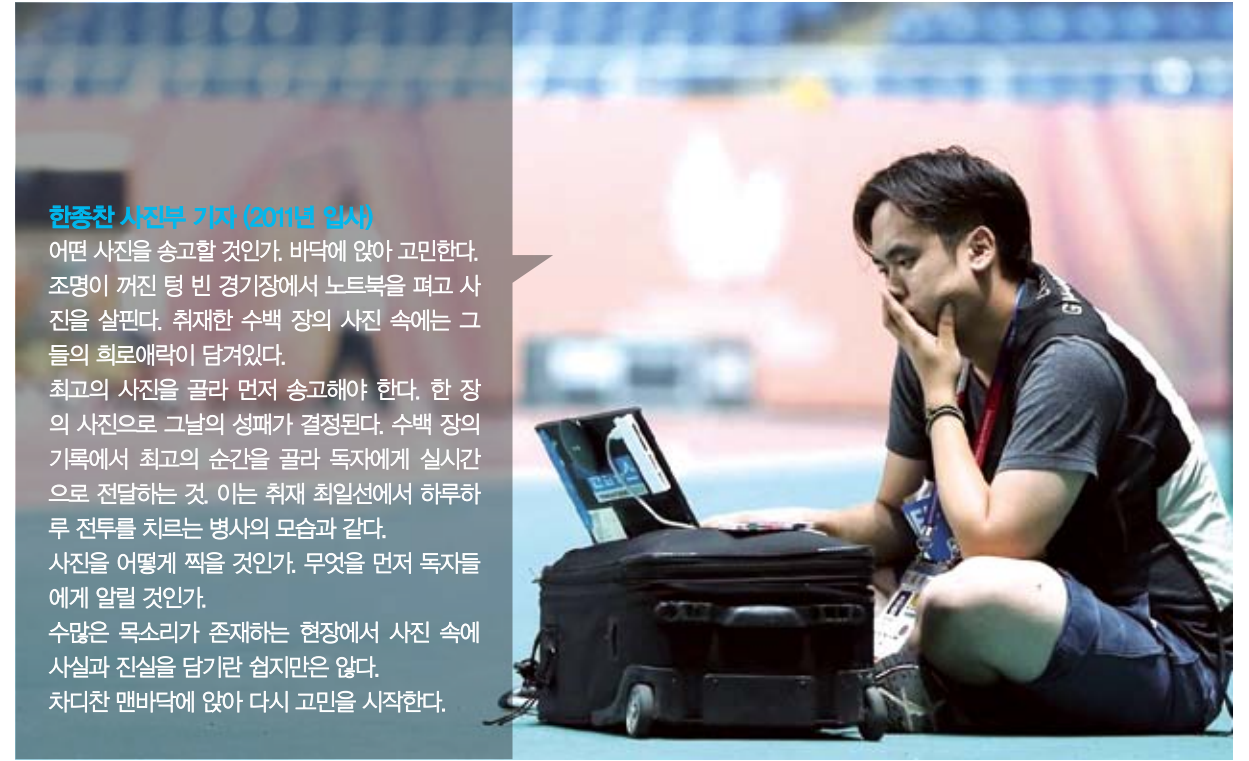
**권숙희 경기북부취재본부 기자 (2016년 입사)**

사건기자의 하루하루는 어찌보면 '건공'의 삶과 같다. 대개 나는 유기견 같다. 의정부 아파트·고양터미널 화재현장에서 나는 자주 글썽거렸고, 죽음과 부상의 사연을 따라다녔다.

때론 애완견처럼 끌어야 했다. 북한 포격도발 때 면사무소 대피소 앞에서 만난 노인들은 성을 냈다. 노인회 장택 사모님을 붙잡고 손주 얘기도 묻고 과일 껍질도 깎아드린다. 겨우 한마디씩 길어 올려 24시간 르포 기사를 채워나갔다.

사냥개마냥 뛰어다닐 때도 있다. 2012년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 2014년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등을 만났을 때는 쓰레기통도 뒤지고 '칼 맞은' 피해자도 찾았다.

그러나 가장 지향하는 건 역시 감시견이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재판정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시민들을 보았다. 악을 잉태한 구조와 권력을 펜으로 감시하는 언론의 원형을 좇으려고 노력했다. 그때 내 윤리적 수명은 개의 그것 이상일 것이다.



**한종찬 사진부 기자 (2011년 입사)**

어떤 사진을 송고할 것인가. 바닥에 앉아 고민한다. 조명이 꺼진 텅 빈 경기장에서 노트북을 펴고 사진을 살핀다. 취재한 수백 장의 사진 속에는 그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최고의 사진을 골라 먼저 송고해야 한다. 한 장의 사진으로 그날의 성패가 결정된다. 수백 장의 기록에서 최고의 순간을 골라 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 이는 취재 최일선에서 하루하루 전투를 치르는 병사의 모습과 같다.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무엇을 먼저 독자들에게 알릴 것인가.

수많은 목소리가 존재하는 현장에서 사진 속에 사실과 진실을 담기란 쉽지않은 않다.

차디찬 맨바닥에 앉아 다시 고민을 시작한다.



**나환진 인도 특파원 (2003년 입사)**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남아시아를 보는 눈이다. 인도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 몰디브까지, 세계 인구 5분의 10 이상의 삶을 오롯이 독자에게 전해야 한다.

수많은 시간 중 대한민국에 의미가 있는 이슈를 찾아야 하는 것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특파원의 사명이다. 현지 정부기관과 신문·방송 보도를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볼리우드의 제왕 사

루크 칸에서 뉴델리 시내 노숙자까지 모두가 나의 취재원이다. 새로운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이국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한인들도 국내에 알려야 한다.

뒷다리만 겨우 만져보고는 꼬끼리를 만져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매 순간 엄습한다.

하지만 매일 쏟아내는 단편들이 독자들에게 이 대륙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로 눈을 더 크게 뜨고 하루를 재촉한다.

# 영문·다국어뉴스부

연합뉴스는 원어민을 포함한 외국어 전문인력 60여명을 상시 투입해 6개 언어로 생산한 뉴스를 해외 독자들에게 서비스합니다.  
 한반도 정세 등 민감한 이슈가 해외 언론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에서 생산한 뉴스를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권 수호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주된 공적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영문·다국어뉴스부의 원어민 기자들.

6개 외국어로 제작된 연합뉴스 홈페이지.

# 기획조정실 글로벌전략팀

연합뉴스는 70개국 83개사와 뉴스를 교류하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통신사입니다.  
 글로벌전략팀은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이사회 개최를 비롯, 다양한 대외교류 업무를 전담하며 연합뉴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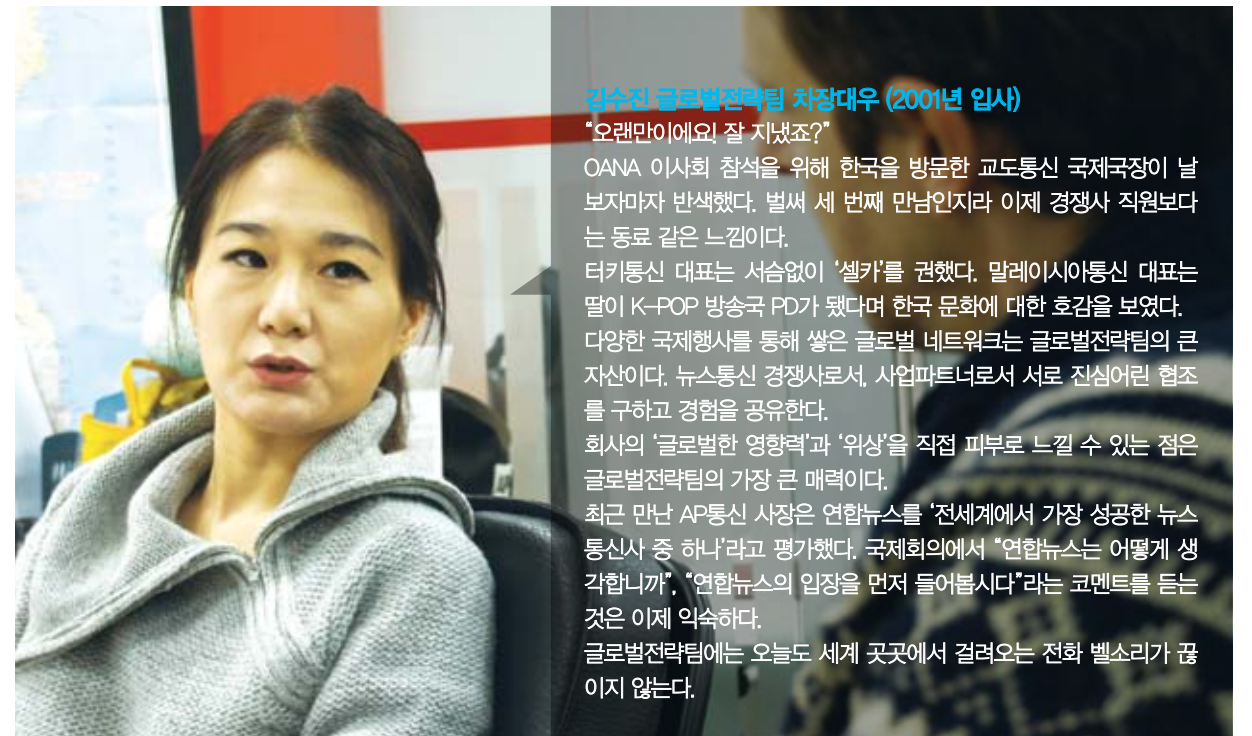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왼쪽)과 아제르바이잔 아제르텍(AZERTAC)통신 이슬란 이슬라노프 사장이 2015년 11월 18일 연합뉴스 본사에서 뉴스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글로벌전략팀 김수진 차장대우.



### 김수연 영문뉴스부 기자 (2008년 입사)

2016년 1월 6일 북한 조선중앙TV 리춘희 아나운서가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귀는 계속 TV를 향한 채 노트북 위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URGENT) N. Korea announces that it has conducted H-bomb test 긴급뉴스로 송고된 이 기사는 연합영문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읽은 뉴스'에 올랐다. 순위는 다음날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주요 외신들은 연합영문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북한뉴스에 큰 관심을 보인다.  
 영문뉴스부·영문경제뉴스부 기자들은 외신 및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인의 시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영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수진 글로벌전략팀 차장대우 (2001년 입사)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OANA 이사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교도통신 국제국장이 날 보자마자 반색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인지라 이제 경쟁사 직원보다는 동료 같은 느낌이다.  
 터키통신 대표는 서슴없이 ‘셀카’를 권했다. 말레이시아통신 대표는 딸이 K-POP 방송국 PD가 됐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보였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는 글로벌전략팀의 큰 자산이다. 뉴스통신 경쟁사로서, 사업파트너로서 서로 진심어린 협조를 구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회사의 ‘글로벌한 영향력’과 ‘위상’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은 글로벌전략팀의 가장 큰 매력이다.  
 최근 만난 AP통신 사장은 연합뉴스를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뉴스통신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국제회의에서 “연합뉴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합뉴스의 입장을 먼저 들어봅시다”라는 코멘트를 듣는 것은 이제 익숙하다.  
 글로벌전략팀에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걸려오는 전화 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미디어기술국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뉴스 생산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중요한 공적 책무입니다. 미디어기술국은 뉴스 콘텐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사제작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합니다. 재정환경이 열악한 중소 미디어사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미디어 상생 역할에도 힘을 모읍니다.



연합뉴스 전산센터.

- ICT기획부
- 운영개발부
- 뉴미디어개발부
- 보안네트워크팀
- 기술지원팀

# 미디어랩

독자들이 원하는 뉴스는 무엇일까. 뉴스통신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미디어전문가·기자들이 모여 모바일시대 언론을 고민합니다. 독자데이터 분석부터 새로운 콘텐츠 발굴까지 연합뉴스의 미래를 그리는 실험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안철수 ICT기획부 차장 (1997년 입사)**  
 지역언론사의 홈페이지 서비스 환경은 열악했다. 자체적으로 열심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콘텐츠 검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비용 탓이었다. 상생과 협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연합뉴스의 콘텐츠 교류·검색 시스템을 지역 언론사와 공유하는 '오픈 API' 사업은 그렇게 첫걸음을 뒀다. 현재 52개 국내외 언론사가 연합뉴스 오픈 API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적 역할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한은희 미디어랩 사원 (2012년 입사)**  
 광복 70주년 기획을 위해 역대 대통령 경축사를 분석해봤다. 총 29만 7천875자, 7만680개의 단어로 구성된 경축사의 형태소를 분석했고 여기서 열셋말을 추출해 중요도를 산출했다. 그리고 각 열셋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편집국과 기사를 작성했다. 대중가요 기사 분석 때는 직접 노래를 들어가며 가사를 입력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열셋말 분석을 위한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데이터는 세상을 좀더 깊이있게 관찰·분석해 이해할 수 있는 창(窓)이라고 믿고 있다.

# 연합뉴스TV·채널23번

##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으로 우뚝”

연합뉴스TV 연혁

**2011년**  
12월 1일 보도전문채널 '뉴스Y' 개국

**2012년**  
12월 4일 한국언론학회 '공정한 미디어' 부문 선정

**2013년**  
2월 24일 보도전문채널 '일일 시청률' 1위 기록

**2015년**  
1월 채널명 '뉴스Y'에서 '연합뉴스TV'로 변경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영상 부문상 수상(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단독 영상 취재) 월 평균 시청률 보도채널 1위

**2016년**  
2월 17일 '한국직업방송' 채널 운영 사업자 선정



###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실현

'아시아 넘버원 영상 뉴스 콘텐츠 허브'를 목표로 2011년 12월 1일 개국,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한국 대표 금융경제 정보 매체 '연합인포맥스' 연계를 통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 대한민국 No.1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

개국한지 1년 3개월여 만인 2013년 2월 보도전문채널 '일일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주간 시청률' 1위, 2015년 8월에는 '월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 영상뉴스 생산에 최적화된 인력과 장비

연합뉴스TV는 현재 방송기자, PD, 아나운서, CG 등 콘텐츠 제작 중심의 인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신속,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는 멀티 플랫폼과 공공시설, 포털, 모바일 등에 채널을 방영함으로써 방송접근권을 확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연합인포맥스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경제 정보매체”



연합인포맥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0년 6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로부터 분사,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금융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내 최강의 금융정보서비스 전문매체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정보 제공 플랫폼인 '인포맥스'를 통해 제공해온 실시간 금융정보 및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기반으로 채권과 외환분야 등에서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 채권·외환 분야의 시장 최강자

회사 설립 4년만인 2004년 코리보(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산정기관으로 선정된 연합인포맥스는 2005년 디지털 금융정보 방송부문에 진출한데 이어 2009년에는 양방향 경제정보 채널 '아

하경제TV'를 개국했습니다.

또 2011년 채권전자입찰 프로그램은 '인포맥스 옵션'을 내놓았고 2013년부터 해외주식거래용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는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한 길에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금융공학연구소도 설립해 금융시장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시장의 선두주자 연합인포맥스는 대한민국 정보주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성장해왔습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예측 정보 제공과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부와 시장 간의 가교역할, 미래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각 대학에 인포맥스를 서비스하는 등 금융시장 선도자로서 책무도 다하고 있습니다.

# ‘통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센터

연합뉴스 동북아센터는 연합뉴스 산하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24년 전인 1992년 설립됐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동북아센터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이 향후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역내 정치·외교·경제 등 분야의 주요 동향을 신속히 포착, 분석, 전파하는 역할을 지향했습니다.

2004년 3월에는 '고품격 경제 월간지'를 표방하며 월간 'MIDAS'를 창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을 깊이 있고 알기 쉬우며 생동감 넘치는 기사들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통산 145호를 낸 월간 'MIDAS'에 자체 취재진 외에도 600여 명의 연합뉴스 기자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세계 25개국, 33개 도시에 나가 있는 60여 명의 연합뉴스 해외특파원들이 숨가쁘게 전해오는 지구촌 소식을 알차고 유익하게 재구성해 지면에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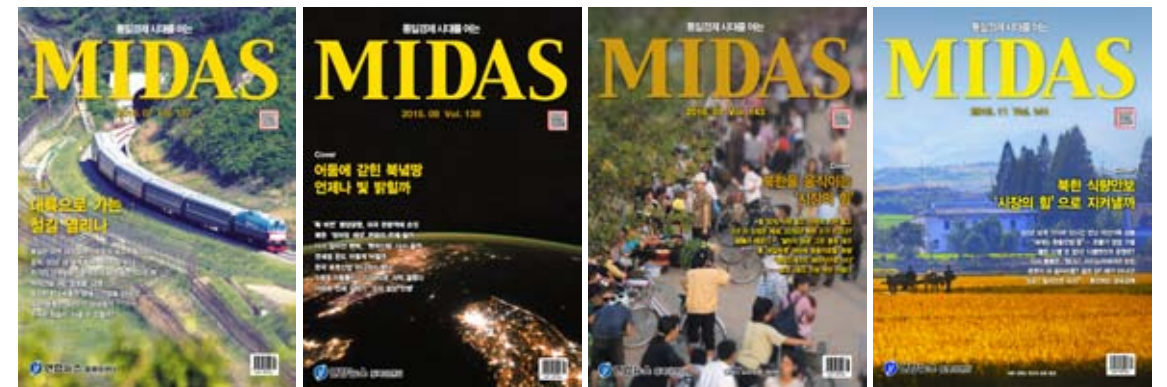
경제월간지로 뿌리를 내리던 월간 'MIDAS'는 2015년 6월 또 한차례의 중대한 변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남북통일 실현과 국민의 통일외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체의 기본성격을 '북한 및 통일경제 전문 월간지'로 전환한 것입니다.

## 북한·통일 경제전문지 'MIDAS' 발간

그 바탕에는 북한과 통일·안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합뉴스의 수준 높은 기사와 관련 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월간 'MIDAS'는 새로운 편집 방침에 따라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경제적 파급 효과, 핵무기 개발 등 북한 관련 이슈와 국제사회 동향 등을 깊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센터는 또 우수 작가를 찾아 양질의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업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경영, 자기계발, 건강·교육 분야의 단행본을 주로 발간했는데 '소니의 선택, 소니의 성공', '이데이 노부유키의 CEO학', '이제는 실패학이다' 등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동북아센터가 발행하는 월간 'MIDAS'.

## 국가홍보

### 연합뉴스·해외문화홍보원, 국가 홍보 협력

연합뉴스와 해외문화홍보원이 2015년 9월 3일 연합뉴스 본사에서 국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측은 외국에 구축한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홍보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는 협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연합뉴스는 전 세계 70개국 83개 외국 뉴스통신사에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홍보사업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합뉴스, 외국 뉴스통신사와 국가홍보뉴스 첫 교류

연합뉴스가 2016년 2월부터 주요 외국 뉴스통신사와 국가홍보뉴스를 교류하기 시작했다. 국가홍보뉴스 교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한국의 경제, 문화, 한류, 여행 등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 홍보 사업이다. 국가홍보뉴스 교류 협정을 맺은 13개 뉴스통신사를 포함한 83개사에 2월 2일 처음으로 한국홍보뉴스를 전달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준비 상황과 한국 화장품의 세계적 열풍 소식을 담은 기사 2건이다.

## 미디어외교

### AP통신 사장 연합뉴스 방문

게리 프루잇 AP통신 사장이 2016년 2월 16일 연합뉴스 본사를 방문해 박노황 사장과 뉴스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프루잇 사장은 “전체 수익의 100%였던 AP 전채로 수익이 20% 정도로 떨어졌다”며 “전체 수익의 40% 가량은 이제 미국 밖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프루잇 사장은 두차례 방북 경험을 얘기하면서 북한 취재의 어려움을 소개하기도 했다. 데이지 비라싱함 국제사업 총괄 수석부사장, 테드 댄서니 아태지역 편집총국장 등도 함께했다.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연합뉴스 방문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2015년 5월 22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 본사를 방문했다. 추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 편집국과 연합뉴스TV 스튜디오, 조정실 등 보도국을 30분가량 둘러본 뒤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과 환담했다.

### 중국기자협회 대표단, 연합뉴스·TV 방문

샤오 쩌쎌 베이징일보 그룹 편집부국장을 비롯한 중국기자협회 대표단이 2015년 6월 29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본사를 방문했다. 샤오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기자협회 대표단 6명은 이날 연합뉴스의 국내외 인력조직과 주요 서비스, 공적 기능 등 현황을 들은 데 이어 연합뉴스 편집국과 연합뉴스TV 보도국 등 뉴스 제작현장을 둘러봤다.

### 미국 국무부 직원 교육에 연합뉴스 기사 활용

미국 국무부 외사업무 교육센터(National Foreign Affairs Training Center)가 2015년 9월에 발간한 직원 교육용 한글 강의 교재에 연합뉴스 국문기사 10건을 수록했다. 미국 외교관들과 국무부 외사업무 담당자들이 연합뉴스 국문기사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교재를 발간한 외사업무 교육센터 산하 미국 국무부 외무연수원(Foreign Service Institute·FSI)은 국무부 소속 외교관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40여 개의 연방 정부 기관 및 군(軍) 인사를 교육하는 연수 기관이다.

### 연합뉴스·인민일보, 취재보도 협력키로

연합뉴스는 2015년 9월 22일 중국 최대 언론사 중 하나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효율적인 뉴스 및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자사 기사 등을 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기사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보도하기로 합의했다. 두 언론사가 공동 취재단을 구성해 특정 기획안을 함께 취재하거나 상대 언론사 기자의 자국 내 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도 했다.

### 주한 러시아 대사, 연합뉴스 방문... 러시아어뉴스팀 신설 논의

알렉산더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2016년 1월 25일 연합뉴스 본사를 찾아 박노황 사장과 연합뉴스 러시아어뉴스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박 사장은 “검토 단계에 있는 러시아어 뉴스팀 신설 방안이 확정되면 한국은 물론 러시아 본국에서도 한반도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모닌 대사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연합뉴스가 기사를 러시아어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01 국가홍보 콘텐츠 교류 협약을 맺은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오른쪽)과 박영국 해외문화홍보원장.  
 02 연합뉴스·연합뉴스TV를 방문한 게리 프루잇 AP통신 사장(오른쪽).  
 03 연합뉴스·연합뉴스TV를 방문한 중국기자협회 대표단.  
 04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조복래 연합뉴스 콘텐츠융합담당 상무이사(왼쪽)와 양전우(楊振武) 인민일보 사장.  
 05 연합뉴스를 방문해 박노황 사장과 환담하는 알렉산더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 해외취재망 확대

### '아시아 넘어 글로벌뉴스통신사로...' 국외 취재망 대폭 개편

연합뉴스가 전 세계에 흩어진 특파원을 중요 지역 별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한다. 프랑스 파리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각각 유럽과 북미 서부지역 의 거점으로 하고 차츰 거점화 지역을 늘려갈 계획 이다. 쿠바 아바나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단기 특파원을, 아프리카에는 임기 6개월의 순회특파원 을 파견하고 핵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풀려 세계 인의 관심이 부쩍 커진 이란 테헤란에 특파원을 두 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파원은 부활시 키고 이탈리아 로마 특파원을 신설한다.

### 국외 연수제도 개선

국외연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외국어 연수 후보 추천자를 당분간 비영어권에서만 선발하기로 했다. 다양한 언어 능력을 보유한 특파원 자원을 육성하 기 위해서다. 2015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연수평가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에 서다. 회사 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는 외국어 과목 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 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마인어, 아랍어, 포르투갈 어 등이다.

### 해외 단기특파원 파견

연합뉴스가 이스라엘, 아프리카, 쿠바 등에 단기특 파원을 파견했다. 김선형 기자가 2016년 1월 28일 에 이스라엘로 떠났고 김수진·김지현 기자도 3월 14일 각각 아프리카와 쿠바로 파견됐다. 해당 국가 들은 우리나라와 멀고 교류도 미미하지만 국제사 회에서 큰 관심을 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과 미국·쿠바 외교관계 복원 등 이슈 때문이다. 단 기특파원 3명은 2011년 말 나란히 입사해 4년을 갖 넘긴 '청춘기자'이다.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그간 한국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를 다각도 로 조명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동포 교류·협력

### 중국 동북 3성 동포언론과 교류 협력

연합뉴스가 재외동포재단과 손잡고 중국 동북 3성 에서 한글로 발행되는 동포 언론사와 교류 협력에 나섰다. 심수화 마케팅담당 상무는 2015년 7월 16 일부터 18일까지 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연지(延吉) 를 비롯해 선양(瀋陽), 하얼빈(哈爾濱) 등을 방문해 조선족 언론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뉴스 콘텐츠 교 류와 기자 연수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흑룡강신문과 MOU

연합뉴스는 2015년 9월 10일 중국 헤이룽장(黑龍 江)성 조선족 대표 미디어인 흑룡강신문과 업무협 약(MOU)을 체결하고 중국 동포 언론 육성에 적극 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961년 중국 헤이룽장성 성 도인 하얼빈(哈爾濱)에서 창간한 흑룡강신문은 일 간·주간지를 발행하면서 한국어 방송도 제작하는 대표적인 중국 동포 언론사다. 연합뉴스는 흑룡강 신문에 기사와 사진 등 뉴스 콘텐츠를 지원하기로 했다.

01



02



- 01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노항 연합뉴스 사장(왼쪽)과 한광천 흑룡강신문 사장.
- 02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한 재외동포 경제인들.
- 03 제2기 청년 공공외교 대사 발대식 참석자들.

03



### 싱가포르 한인경제인대회 개막

전 세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장인 제20 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2015년 10월 19일 싱가포 르의 센토사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국내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70개국 137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들 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민족 경제 영 토를 확장하기 위해 열렸다.

### 연합뉴스·반크 '청년 공공외교 대사' 발대식

연합뉴스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016년 2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공외교 활 동을 펼칠 중·고교·대학생 90명과 함께 '청년 공공 외교 대사 발대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블로그·페 이스북 등 SNS 활용 방법과 거리 홍보 등 오프라인 활동 노하우를 배웠다. 이들은 주요 포털 및 웨사이 트, 외국 교과서와 관광안내 책자 등에서 한국에 관 한 오류를 찾아 제보할 예정이다.

- 01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 02 '다문화 2세 교육, 함께가는 첫걸음' 포럼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 03 제6회 연합뉴스-한국다문화연대 전국탁구대회.
- 04 2015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연합뉴스 부스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983년 미안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당시 사용된 연합뉴스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다.



## 다문화 관련 활동

###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연합뉴스는 2015년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2015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를 열었다. 6회를 맞은 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문화가족 340가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7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 다문화교육 포럼

연합뉴스는 2015년 7월 14일 본사 사옥 17층 연우홀에서 '다문화 2세 교육, 함께 가는 첫걸음'이란 주제로 '2015 다문화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이 포럼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현장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문화연대 탁구대회

연합뉴스와 한국다문화연대는 2015년 11월 2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체육관에서 '2015 한국다문화연대 전국탁구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생활 탁구인 7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 수익금 전액은 선천적 기형으로 고통받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기부됐다. 6회를 맞은 이 대회에는 한정화(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양영자 전 국가대표가 참석해 힘을 보탰다.

## 연합뉴스 알리기

###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참가

연합뉴스가 2015년 5월 12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신문·뉴미디어 엑스포'에 참가해 국가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성회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 등 사진을 전시했다. 1983년 미안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당시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최금영 전 연합뉴스 부장의 사진은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 모바일·SNS 역량 강화

### 디지털저널리즘 의무교육

연합뉴스는 2015년 5월 15일부터 실·국장에서 평 기자까지 전체 국문 기자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뉴 미디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①포털 뉴스의 변화와 트렌드 ②연합뉴스, TV, 포털·매체 환경 변화와 디지털 혁신 ③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한 뉴스콘텐츠 경쟁력 모색 등이다.

### 통통영상 서비스 개시

연합뉴스는 2015년 9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영상뉴스인 '통통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SNS를 비롯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영상콘텐츠인 '통통영상'은 가장 '핫'하고 흥미로운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보여준다. 놓쳐서는 안 될 국내외 주요 현장이나 토픽을 보여주는 '현장영상'과 연합뉴스TV 리포트 중 핫한 아이템을 선별해 재구성한 '자막영상' 등을 주로 서비스한다.

### 오픈 API 콘퍼런스

연합뉴스는 2015년 12월 1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15 Open API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역 언론사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차원에서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Open API 방식을 설명하는 자리다. 콘퍼런스에서는 오픈 API 사업소개, 기능소개 및 구축사례, 효용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미디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Open API를 활용한 미디어 환경 개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 행사에는 34개 지방 언론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오픈 API OANA 어워드 수상

연합뉴스 미디어기술국이 2015년 11월 16일 아시아 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어워드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뉴스통신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개인·단체에 수여된다. '오픈 API'는 기술 역량이 부족한 언론사들이 국제표준에 맞는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서비스·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사내 동정

### 박노환 사장 취임

박노환 연합뉴스 제14대 사장이 2015년 3월 25일 취임했다. 박 사장은 위기에 직면한 회사의 경영을 맡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며 연합뉴스의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 사장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경쟁력을 갖춘 회사, 사우들이 행복한 회사'라는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 새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부서별로 관리하던 각종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자 2015년 9월 14일을 기해 새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활용해 개인정보가 담긴 30여종을 제외한 문서 대부분을 전자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당직비 청구, 물품구입 요청 등 40여종류는 ERP시스템에 자료만 입력하면 결재 문서까지 자동으로 작성된다.

### 연합뉴스 3사 '연합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연합인포맥스 등 3사 구성원들이 2015년 10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2015 연합가족 한마당'을 열었다. '꿈을 향한 무한질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900여 명이 참여해 대가족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소속사 구분 없이 연합 가족의 일원으로 청룡·백호·주작·현무 등 4개 팀에 섞여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우의를 다졌다.

### 연우회 만남의 날 행사

2015년 10월 30일 연합뉴스 인근 한 음식점에서 퇴직사우 모임인 연우회의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찬을 겸해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행사에는 연합뉴스그룹 OB회원 82명이 참석했다. OB회원들은 재직 시절을 회상하고 현직 후배들을 응원했다.

01



02



03



04



01 연합뉴스 디지털저널리즘 교육.

02 2015 오픈 API 콘퍼런스 참석자들.

03 연합뉴스 3사 체육대회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원들

04 연우회 만남의 날 행사.



01 연합뉴스 창립35주년 기념식 개최. 왼쪽부터 이흥기 전무, 박노황 사장, 심수화 상무, 조준형 감사.  
02 광고신도시로 이전한 경기취재본부 건물.

### 연합뉴스 창립기념식

연합뉴스는 2015년 12월 18일 본사 17층 연우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박노황 사장은 기념사에서 “연합통신이 창사 35년 만에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연합인포맥스 3사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그룹이 됐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980년 출범 이후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사원들이 하루하루 흘린 땀과 노력으로 오늘의 연합뉴스 그룹을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 경기취재본부 광고신도시로 사무실 이전

경기취재본부가 2016년 1월 16일 수원 광고신도시 ACT 연구센터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새 보금자리는 이전 사무실보다 아담하지만 건물 1층 현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이 자랑거리다. 방 2개로 나뉜 사무실 중 한 곳에는 본부장을 비롯한 취재기자들의 PC가 설치됐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회의를 한다. 나머지 사무실은 방송과 사진취재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비돼 방송팀, 사진기자들과 함께 전산 및 사무직원이 주로 활용한다.

### 디지털뉴스부 신설

뉴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는 디지털뉴스부가 2015년 12월 28일 신설됐다. 콘텐츠총괄본부에 소속된 디지털뉴스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모바일 독자를 겨냥한 미래형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임무를 맡았다. 현재 디지털뉴스부에는 그래픽·영상·SNS·융합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모여 카드뉴스, 카드툰, 23초뉴스, 현장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다.

### 경력기자 잇달아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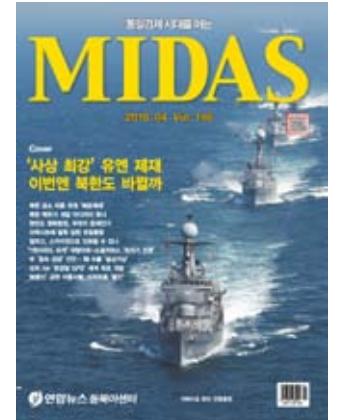
연합뉴스가 2016년 들어 경력기자를 수시 채용하고 있다. 2월 17명을 채용한데 이어 3월에도 4명을 추가 채용했다. 채용규모는 평년 공채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력기자는 경제·스포츠·문화·의약·뉴미디어·영문·북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됐다.

### 연합뉴스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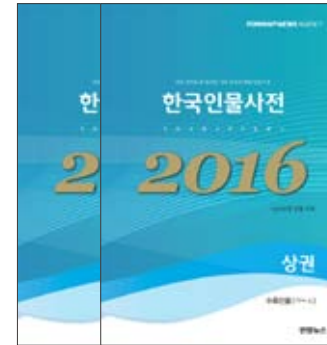
문의처 본사(출판부) (02)398-3590~1, 동북아센터 02-398-3767~8



연합이매진  
2016년 4월호 제4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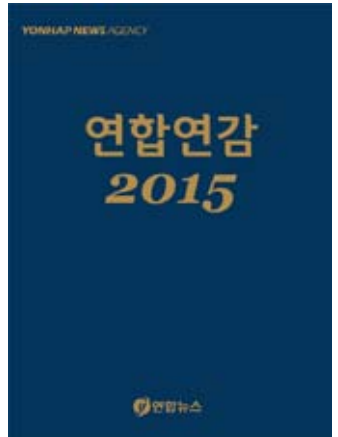
마이더스  
2016년 4월호 제146호



한국인물사전(상·하/2016)  
국내 인사 2만4천명 인물정보 수록



영문연감(2015)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문화 정보를 수록한 영문판 연합연감



연합연감 (2015)  
2015년 국내 및 북한의 주요 사건·통계 수록



연합뉴스 포토북  
'Moments of Korea and Koreans 한국, 한국인'  
연합뉴스 사진기자가 생생하게 기록한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OANA 도록  
2015년 11월 서울서 개최한 이태뉴스통신사기구(OANA) 이사회 및 보도사진전 작품 수록